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정책을 위해 글로벌 도시가 단결(임시번역)

- 바르셀로나, 프리타운, 런던,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도쿄는 젠더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도시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 현재의 경향으로는 경제적인 남녀 격차는 앞으로도 275 년간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젠더 평등을 위한 시티 허브 네트워크(CHANGE)는 남녀 차별, 여성 멸시, 젠더에 의거한 불공평에 대한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기준) 공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전세계에서 여성과 소녀는 기회의 상실, 임금 불평등, 신체적·성적 폭력, 높은 무급노동 비율, 낮은 여성 정치대표 비율 등 많은 차별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젠더 갭 보고서」(2020 년)는 현재의 페이스로 가면 경제적인 격차는 향후 257 년간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세계가 COVID-19 팬데믹에 의해 초래된 중대한 과제에 계속 직면해 있는 가운데 팬데믹이 특히 여성의 건강, 안전, 고용, 경제적 자립성에 대해 불균형하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맥킨지 & 컴퍼니에 의한 2020 년의 별도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 하에서 여성의 고용은 남성의 1.8 배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세계 고용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고용손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선구적인 국제 도시 네트워크는 전세계의 도시 레벨에 있어서의 젠더 평등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젠더 평등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1 월 23 일(월)에 개최되는 버추얼 회의로 발족한다.

이 네트워크의 초대 의장은 로스앤젤레스다. 에릭 가르세티 시장님의 리더십 아래 도시의 종합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와 시스템이 모든 시민에게 이바지하기 위한 개혁이 우선 과제가 된다. CHANGE 의 활동은 인종, 종교, 민족적인 출신, 장애, 성적 지향, 젠더 아이덴티티와 표현에 의거하여 교착된 불평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각 도시의 발언 내용은 본문 참조)

도쿄도 지사 고이케 유리코는 이렇게 발언했다. 나는 2016 년에 도쿄도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지사에 취임한 이래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들 리더가 자기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임하고, 더욱 도시간 제휴를 꾀해 나가는 것은 각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과제 해결에도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COVID-19 와의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COVID-19 는 일본 도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참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가 앞으로도 활력 있는 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도쿄도는 내년엔 도쿄 2020 대회를 주최합니다. 올림픽·아젠다 2020 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참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HANGE 이념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집자에게 주의사항: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젠더 갭 보고서」(2020 년)에서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하면, 보고서 초판부터 계속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107 개국에서는 세계 전체의 젠더 갭 해소에 평균적으로 99.5 년간을 요한다. 경제 참여와 기회의 격차 해소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6 ~2020 년 사이에 요한 페이스의 지연으로는 이 갭을 메우는데 257 년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다. 리포트 전문은 이쪽을 참조할 것: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0.pdf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팬데믹과 그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에 따라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에 비해 매우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이쪽을 참조:

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2020/9/feature-covid-19-economic-impacts-on-women?utm_source=dlvr.it&utm_medium=facebook

맥킨지 & 컴퍼니는 여성의 일은 남성의 일보다도 1.8 배나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시산하고 있다. 여성은 세계 고용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업 전체 수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에게 영향이 큰 이유의 하나는 팬데믹이 여성에 대한 무보수 간병 부담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도 이것은 특히 여성의 고용이 평균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future-of-work/covid-19-and-gender-equality-counteracting-the-regressive-effects#>